

# 취준생 “이젠 공부할 곳이 없어요”

### 코로나19에 도서관 등 제한·금지로 학업 불편

### 폐관시간 앞당겨... 별도 학습 공간 확보 골머리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에 대한 집합을 제한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학습할 수 없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스터디 그룹으로 형성된 학습 공동체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취업 관련 학습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마저도 모두 중단됐다.

1일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도서관·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의 운영이 제한·금지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학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조선대는 전날부터 중앙도서관 1층 로비를 제외한 전 열람실을 폐쇄했다. 도서관에서 학습을 하던 학생들은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재학생 김모씨(25)는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다”며 “공부 환경이 바뀌다 보니 전보다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주변 스터디 카페가 신규 회원을 받지 않으면서 학습 공간을 대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용고사 준비생인 A씨(23·여)는 “스터디룸 대여가 어려워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것보단 학습속력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시험 준비가 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선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광주시에 내려진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열람실을 폐쇄했다. 당분간 이러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전남대는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6인 책상에 한명만 앉을 수 있게 제한, 수용 인원이 대폭 줄

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대 재학생 조모씨(28)는 “공부 공간이 따로 없어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 저런 학습 공간을 계속 이용하긴 힘들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또 “서울시 쪽엔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카페 등의 학습 공간이 다수 있다고 들었다. 광주시도 이번 위중한 시기

가 지나고 나서 청년지원시설 설립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현재 발열 체크와 방역물품 착용·책 소독 등 열람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관시간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단축했다.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학습 공간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전 0시까지 해당 학습 시설 내 50인 이상 모임을 제한된다. /김영민 기자



과밀 해소 컨테이너 임시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이어진 1일 오후 광주 수완초등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 임시교실을 설치했다. /김성훈 기자

## 파업 전남대병원 전공의들 자원봉사

### 선별진료소 등서 코로나19 대응 적극 참여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해 파업중인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있다.

1일 전남대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교대로 매일 24시간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그동안 전문의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으나 전공의 파업 후 전문의 업무량이 늘어난 점과 선별진료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봉사를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도 지난달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긴급 면담한 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에

계속 동참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봉사활동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진료 현장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인사드리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며 “잘못된 의료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 중이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자 방지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병원(본원·화산·빛고을 3개 병원)에는 전공의 314명이 복귀 중이며 이중 307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영민 기자

##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재추진

### 주민협의회 통과 업무협약

광주 북구가 광주교육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에 나선다.

1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2일 오전 11시 청사 2층 상황실에서 광주교육대, 복합체육센터 건립 주민협의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광주교육대 제2운동장 테니스장을 복합체육센터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정보공유,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 주요 골자다.

북구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올해 말 착공, 국·시비 등

총 132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000㎡ 규모로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주차장을 비롯해 1층은 주민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휴게실 2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협약에 참여한 두암1·2·3동·풍향동 등 4개동 25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도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의 동반자로서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문화·체육·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 생활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 시민단체, 비위 북구의원들 솜방망이 징계 규탄

### “북구의회 자정 노력 내팽개쳐...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시민단체가 비위를 저지른 구의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결정한 광주 북구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통해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겸직 신고

위반·지위 남용 등의 비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3명의 징계안에 대해 ‘공개 사과’로 결정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평가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6월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을 11건을 따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백순선 의원에 대해 ‘제명’ 대신 ‘출석징지 30일’이

라는 징계를 내려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자치21은 “선승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향 선배가 대표인 업체의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해, 북구청에서 4억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위 행위는 백순선 의원의 비위 행위보다 가볍지 않은 예도 백 의원의 징계안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는 “비위 사실이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여망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징계인 중징계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찬 기자

## 여종업원 추행·협박 50대 징역 1년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협박·보복한 업무에 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31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하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공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강제추행했다.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A씨는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b>1) 상무지구 6층, 7층(140평)</b> 감정가(시세) - 8억 4억 [급매] (용 2억 있음, 빠, 사무실, 모든업종가능)</p> <p><b>2) 첨단지구 상가(오피,주택가능) 10층</b> 감정가 (시세) 2억 → 8,000만 (급매) 올 리모델링 (현 임대중, 보500만, 월44만, 용4천)</p> <p><b>3) 용봉동 원룸 매매 (용봉IC 3분)</b> [룸15개, 주택1]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6억9천만원</p> <p><b>4) 광산구 수완동 다가구 원룸</b> 원투룸15개 안집1개-9억5천</p>	<h3>장성토지 분양</h3> <p><b>광주에서 20분 (도로접)-분양</b> (주택·주말농장,농막가능,텃밭가능)</p> <p>1) 토지 50평 (농막가능) → 4,000만원 2) 토지(대지) 100평( 주택1채) → 8,000만 3) 토지 120평(농막6평포함)-8400만 4) 토지150평(농막6평포함)-1억2000 5) 토지1000평(도로45미터접)---6억(용자3억) (전원주택가능,창고 물류, 사무실, 투자적합)</p> <p>■ 추천물건</p> <p>1) 장성읍 용강리(토지760평18천5백) 9) 장성 아은리500평(국도접함)-4억 2) 장성 아은리500평-4천 10) 장성 아은리200평(국도접)-1억4천 3) 장성 아은리100평-7천 11) 장성 황룡리2천평도로접-9억 4) 아은리 시당182평-5억5천 12) 장성 황룡리3천평--12억 5) 장성 아은리임야22500평-11억2천 13) 담양읍 금성(1470평)-8억 6) 장성읍 덕전리1300평-1억6천 14) 장성 삼서금산리300평-8억 7) 남면 월정리1100평- 6억5천 15) 서구 서창주택가능 270평-6억 8) 장성 아은리300평도로-2억1천 16) 장성 북일면(계획3200평-14억</p>	<h3>경매물건</h3> <p>수익형 상가 건물 및 다가구 원룸</p> <p>1)광산구 용봉동5층(상가건물) ▶감정 18억-최저 9억9천 2)광산구 하남동 (2층) ▶감정 8억3천7백 → 최저 4억7천 3)광산구 월계동 (2층) 61평 ▶감정 4억9천6백 →최저 3억4천7백 4)남구 행암동1층상가120평 ▶감정 5억-최저 1억7천 5)광산구 하남동(상가)3층)111평 ▶감정 7억-최저 4억 6)남구 행암동 (1층상가) 18평 ▶감정 5억 → 최저 1억7천8백 7)해남무인텔 2층 ▶감정 12억 -최저 4억4 8)북구 용봉동(고시원4층) ▶감정 13억 → 최저 9억1천 9)대전시티미널옆,11층건물 ▶감정 84억-최저 28억</p> <p>토지 / 공장 / 아파트 / 기타</p> <p>1)나주시(토지2346평) ▶감정 5억3-최저 2억3 2)목포시 옥암동 (토지) 208평 ▶감정 11억6천 → 최저 6억5천 3)남구 송하동 (공장) ▶감정 12억7천 → 최저 5억7천 4)광산구 평동 (공장) ▶감정 23억 → 최저 16억 5)나주 토지1486평 대로변300미터 ▶감정 12억-최저 8억5 6)동구 지산동 주택58평 ▶감정 1억6천-최저 7천 7)남구송하동(공장) ▶감정 127억-57억 (토지1만평,건물2천)</p>	<h3>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h3> <p><b>1) 기초 실전반 모집</b> (무료강의 병행) 1) 기초이론 + 실전</p> <p><b>2) 중급 실전반</b> 1) 중급이론 + 실전</p> <p><b>3) 고급 특수반 모집</b></p> <p><b>4) 전문반 모집</b>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터디</p> <p>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p> <p>※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p> <p><b>추천 물건-(특수물건)</b></p> <p>1) 충남 홍성(토지1만2천평) 감정100억-최저25억 2) 경기양평 주택4채 감정21억-최저7억 3) 충북 수안보(4층건물) 감정13억-최저3억3천 4) 충남 홍성(아파트부지2천5백평) 감정17억-최저11</p> <p><b>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b>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p>
---	--	---	---

010-6670-9800

062-382-5500